

# 짜릿한 극장골 제주 2연승 휘파람

### K리그1 인천 2-1로 격파 5개월 만에 연승 이어가 득점선두 주민규 선제골 이창민 추가시간 골 작렬



11일 열린 K리그1 인천과 제주의 경기에서 제주의 이창민이 패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인천 원정에서 짜릿한 승리로 5개월 만에 연승의 기쁨을 맛봤다.

제주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2-1로 이겼다.

전반 26분 주민규의 선제골로 앞서다 후반 19분 델브리지에게 헤딩 동점 골을 허용해 무승부로 끝나야 싶었으나 후반 49분 이창민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려 승부를 갈랐다.

이로써 제주는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승점을 34(7승 13무 7패)로 높였다. 순위는 8위에서 변함이 없었지만 6위 수원 삼성(승점 36·9승 9무 10패)에 2점 차로 따라붙어 파이널 A 진입 희망을 이어갔다.

제주가 연승한 것은 4월 11~21일 3연승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창민은 지난달 FC서울과 홈 경기(1-0승)에 이어 2경기 연속 결승골로 제주의 연승을 이끌었다.

먼저 균형을 깬 것은 제주였다.

전반 26분 인천 페널티지역 안 왼쪽을 파고든 추상훈이 낮게 크로스를 올렸고, 공이 불규칙하게 구르면서 인천 수비수 사이를 지나 골문 왼쪽에 있던 주민규에게 배달됐다.

주민규는 노마크 찬스에서 가볍게 오른발로 골문을 차 넣었다. 리그 14호골을 기록

한 주민규는 득점 선두 수원FC 라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00년생 추상훈은 이날 선발 출전해 K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공격포인트까지 올렸다. 전반 35분 조성준과 교체됐으나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먼저 일격을 당한 인천도 전반 35분 22세 이하(U-22) 자원이 박창환, 이종욱을 빼고 네게바, 아길라르를 투입해 반격을 준비했다.

계속 제주를 위협하던 인천은 후반 19분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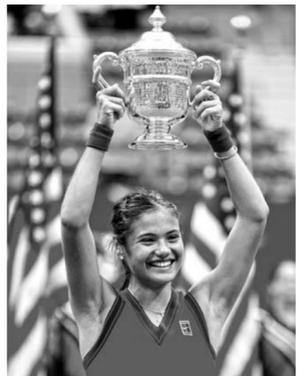
오른쪽 코너기 기회에서 아길라르가 짧게 내준 공을 네게바가 차올리자 델브리지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머리로 돌려놓아 동점골을 뽑았다.

제주는 후반 29분 안현범의 패스에 이은 주민규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되고, 5분 뒤 김영국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결국 무승부로 인천 원정을 마치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박원재의 패스를 받은 이창민이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열어 제주에 극적인 승리를 안겼다. 연합뉴스

# 19세 라두카누 US오픈 테니스 정상

### 동갑 페르난데스에 2-0 완승 예선전부터 무실세트 우승



US오픈에서 우승한 라두카누. 연합뉴스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와의 '10대 대결'에서 승리하며 생애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라두카누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1시간 51분 만에 2002년생 동갑내기 페르난데스를 2-0(6-4, 6-3)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라두카누는 1999년 대회 세리나 윌리엄스(17세 11개월)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US오픈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썼다. 또 2004년 윌버턴 결승에 올랐던 마리아 샤라포바(17세) 이후 최연소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가 됐다.

그녀는 메이저 대회 남녀 단식을 통틀어 처음으로 예선 통과자가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록도 세웠다. 특히 예선 3경기과 본선 7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무실세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끝난 윌버턴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해 4회전까지 올랐던 라두카누는 바로 다음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새

'테니스 여제'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영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1977년 윌버턴에서 버지니아 웨이드(76·은퇴) 이래 44년 만의 일이다.

라두카누는 우승 상금 250만달러(약 29억2500만원)를 받아 돈방석에 앉았다. 이전까지 라두카누가 여자프로 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은 30만3376달러(약 3억5500만원)로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의 8분의 1도 안 된다.

라두카누의 행보는 30위 안쪽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선두 kt wiz... 60승 고지 선착

### KBO리그 더블헤더 1차전서 고영표 완봉 SSG 10-0 승리 키움은 롯데전 14안타 4연승

과 전민수가 승부를 결정짓는 투런홈런을 쏘아 올려 8-2로 승리했다. 이로써 최근 4연패의 사슬을 끊은 6위 NC는 5위 SSG 랜더스를 1게임 차로 추격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김선기의 호투를 발판삼아 롯데 자이언츠를 물리치고 '가을야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키움은 롯데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장단 14안타를 몰아쳐 8-3으로 승리했다. 4연승을 달린 4위 키움은 5위 SSG 랜더스와 승차를 2.5게임으로 벌렸다. 3위 삼성 라이온즈와 승차는 3.5게임으로 좁혔다.

두산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더블헤더 1차전에서 LG 트윈스를 8-5로 꺾었다. LG는 2연승에서 멈췄다. 비록 유희관의 개인 통산 100승은 날아갔지만, 두산이 팀 승리를 지키며 신바람 5연승을 달렸다.

같은날 열린 최하위 한화화 삼성의 더블헤더 1차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이 났다. 갈길 바쁜 삼성을 상대로 한화는 고춧가루 부대의 저력을 보여주며 발목을 잡았다. 연합뉴스



역투하는 고영표 12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리그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t wiz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에서 kt 선발투수 고영표가 역투하고 있다. 이날 kt는 고영표의 무사사구 완봉 호투와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10-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두 kt wiz가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60승 고지를 밟았다.

kt는 12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신한은행 2021 SOL KBO리그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 1차전 홈 경기에서 토종 에이스 고영표의 무사사구 완봉 호투와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10-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kt는 60승 39패 4무를 기록하면서 정규 시즌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프로야구 통산 60승 선점 팀이 정규시즌에서 우승한 건 30시즌 중 22차례(73.3%),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30시즌 중 17차례(56.7%)·이상 1982-1988 전후기리그, 1999-2000 양대리그 제외)다.

NC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선발 드루 루친스키의 호투 속에 나성범

# 류현진 최악투... 시즌 최소 이닝 굴욕

### 볼티모어전 2⅓이닝 7실점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14승에 도전했으나 시즌 최악투로 고개를 숙였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퍼아츠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 2⅓이닝 만에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흔들 2개 포함 8개의 안타와 볼넷 1개를 허용했고 삼진은 4개 잡았다.

2⅓이닝은 류현진의 올 시즌 한 경기 최소 이닝이다. 지난해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류현진이 3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7실점은 류현진의 올 시즌 최다 실점 타이이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77에서 4.11로 치솟았다. 그러나 토론토는 11-10으로 승리하며 와일드카드를 가를 야구 무대에 오를 희망을 살렸다.

류현진은 3-7로 밀린 3회말 로스 스트리플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류현진은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9패(13승)째를 떠안을 위기였지만, 7회초 조지 스프링어의 극적인 역전 홈런이 나온 덕분에 패전을 면했다.

류현진은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14승과 아메리칸리그(AL) 다승 공동 1위 기록을 살리지 못했다.

다저스 시절인 2013년(14승 8패), 2014년(14승 7패), 2019년(14승 5패) 14승을 달성한 류현진이 이날 토론토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시즌 14승에 도달했다. 류현진은 이날 토론토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시즌 14승에 도달했다. 류현진은 이날 토론토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시즌 14승에 도달했다.

류현진은 1회말 산탄데르에게 초구에 좌월 2점 홈런을 허용했고, 2회말 또다시 2점포를 맞으며 흔들렸다.

토론토 타선의 득점 지원에도 류현진은 3회말 완전히 무너지며 강판됐다. 토론토는 전날 로비 레이(4⅓이닝 3실점)를 이어 류현진까지 구단 최고 선발투수가 연달아 볼티모어에 무너지는 충격 속에서도 타선의 뒷심으로 승리를 따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속이도 궁금(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경찰수업(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다크프라이미 11:40 검은태양 데이브레이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생방송 오늘 11:00 유쾌히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고고 다이노 공룡탐험대 8:00 당당맨 유치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반개맨 9:40 우리집 유치원 11:20 세계테마기행 12:10 이주 개발한 기행 15:25 클래식 e 16:30 당당맨 유치원 17:00 EBS 뉴스 17:20 꽃 필리는 어린 양 손 18:00 생방송 방과 후 들뜬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명기획 문화스캐치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 16:00 보물섬(재) 16:50 와이드 맵 플러스(재)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경찰수업(재) 13:30 테레킨토르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연승 라이브(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브레이크 타임(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16:50 박원수의 같이 살다(3)(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2 12:50 동상이몽2 13:20 헬로키키 신바람 자연교실 3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재)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시(재) 17:00 SBS 오늘 17:35 JIBS 뉴스 17:50 내로세모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맞춤뉴스 12:05 CBS맞춤뉴스 12:05 천안기의 인생길 13:30 생명의 숲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희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속이도 궁금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백종원 쿨리쓰 21:30 경찰수업 22:40 개는 훌륭하다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승리를 넘는 녀석들 미스터X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흥천지 23: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봐서 관광중국어 8:00 세프의 팔도방송 9:00 KCTV 뉴스 9:00 KCTV 다크스페셜 11:30 취미로 먹고 산다 14:00 세프의 팔도방송 15:20 마음의 고향 시골정터 17:00 KCTV 뉴스 18:00 세프의 팔도방송 18:50 UHD 제주산책 21:0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3일**

김홍상 지단(해트)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심사숙고와 필요할 때, 즉흥적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48년 쓸데없는 욕심은 마음만 다치고 고민으로 가득차니 금물. 60년 재물욕심이나 이성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명한 처신과 정돈을 가져라. 72년 손님이 방문하거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활동 범위를 넓혀라. 84년 만남이 있으며 미팅도 주선됨.

**42년** 자식이나 후배 부하직원에 의한 재물손실수가 있으니 관리 철저. 54년 친구나 동료와 다툼이 있다. 음주 절제. 66년 열정이나 강한 의욕으로 활동성은 왕성하나 안전사고나 다름 조심. 78년 취업이나 직장내 구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90년 기록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경합한다.

**37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49년 계약이 성사되고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 내가 먼저 배려를 하라. 61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니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73년 추진하는 일이 지체되고 부진하다. 폭넓은 대인관계 필요. 85년 이성관계에 즐거움이 있으며 동료와의 모임을 갖는다.

**43년** 한마디 말이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5년 기분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실수를 연발하거나 재물지출이 발생. 67년 윗사람이나 부모와의 의견다툼으로 스트레스가 있다. 79년 직장이나 이성관계가 있어도 내 말을 채워주지 못한다. 91년 위치에 탈이 오니 건강검진 필요.

**38년** 남과 더불어 의는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내가 할 일이 생긴다. 50년 월급생활자는 야근이 생기거나 술자리를 동석하니 운전은 자제. 62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 형제간 대화 필요. 74년 사업확장은 이득이 되지 못한다. 재물관리 철저. 86년 집안에 도움 줄 일이 생기거나 봉사할 일이 생긴다.

**44년** 윗분이나 부모님의 일로 외출을 하게 된다. 56년 추진하는 일에 성과가 있으며 부하직원이나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 68년 직장문제나 부부사이에 불화가 올 수 있다. 80년 취업이나 업무에 대한 활동력이 늘어나고 좋은 소식이 있다. 92년 내 고집만을 주장하기 보다 친구의 의견도 수렴. 계획을 수립하라.

**39년** 명예를 얻으면 자금이 지출되고, 과욕은 관재수를 안는다. 51년 부친이나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 63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식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5년 구매통증 또는 쇼핑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돌아다니고 싶어한다. 87년 갑작스런 결정은 후회가 따른다.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57년 송사문제나 관재구설.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매사를 심사숙고. 69년 배우자나 남자문제나 자금이 지출되고 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 81년 집안에 관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뵙는 것이 마음 편하다. 93년 건강이 약해지니 조심.

**40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그르치니 냉정함이 필요하다. 52년 적극적인 용기와 실천으로 내 의지대로 행하고 추진하라. 64년 동업은 불리하다. 재물손실 주의. 76년 취업이나 직장문제가 갈수록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88년 무리한 추진은 뜻하지 않는 안전사고로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

**46년** 초대를 받거나 중책이 주어지기도 한다. 58년 가까운 사이 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인정을 받는다. 70년 재물이 길하니 활동하라. 뜻하지 않는 귀인의 도움이 있다. 82년 타인의 인정을 받아 좋으나 피곤이 누적돼 힘이 든다. 재추진의 휴식 필요. 94년 매마나 문서상 변화가 오게 된다.

**41년**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 53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주변의 시기와 마음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65년 귀인의 도움으로 활동력이 커지고 일이 성사된다. 77년 자만심과 독단은 벗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겸손하라. 89년 나태함이 곧 의욕상실로 갈 수 있으니 게으르면 불리하다.

**47년**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찾아오니 오늘은 일찍 귀가. 59년 인허가 취득, 승진 명에 등은 있으나 자금지출을 동반한다. 71년 배우자나 윗분의 조언을 수렴하고 추진하면 무방하다. 83년 취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강한 소식이 있다.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필요. 95년 활동할 일이 생기고 모임이 있으니 즐겁다.